

제1절 _ 민족사학의 탄생

(1) 재단 설립 전

학교 설립 초창기의 모습은 제1편 〈민족사학의 탄생과 재단 구성〉에서 자세히 언급하였기에 여기서는 재단설립과정과 발전내용 및 공적을 기술하고자 한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극에 달했고, 우리 민족의 얼을 말살시키려 온갖 획책을 자행하던 시기인, 1938년 7월 4일 선각자 김영배(金英培) 선생, 유창호(柳昌浩) 선생, 구백서(具百書) 선생 세 분께서는 식민지 청소년에게 민족혼을 심어 주려는 일념으로 울목동 239번지 무덕관 2층을 차용하여 〈인천상업강습회〉를 개소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 29일 〈인천상업전수강습회〉로 승격 인가를 받은 후 정규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민족정신과 자주독립의 의지를 키워주는 방법이 '교육'에 있음을 인식하고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재력과 덕망을 갖춘 인사들을 심방(尋訪)하여 김윤복, 유군성, 이흥선, 김세완, 김종섭 다섯 분을 영입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영원히 국권을 되찾지 못할 것으로 자포자기하고 일제통치에 숨죽이고 살아갈 때, 서로 울분을 토로하며 교육입국(教育立國)의 신념과 민족애를 지닌 분들께서 뜻을 함께 한 것이다.

드디어 1939년 2월 24일 김윤복(金允福), 유군성(劉君星), 이흥선(李興善), 김세완(金世玩), 김종섭(金鍾燮) 다섯 분을 설립자로 하여 을종학교인 〈인천상업전수학교〉로 인가를 받고 동년 4월 1일 무덕관에서 120명의 입학식을 거행하게 된다. 그리고 교지(校地) 확보

를 위해 다섯 분이 사재(私財)를 거두어 9,000圓의 기금을 마련하고 우여곡절 끝에 일본인 소유의 송림동 47번지 땅 3,000평을 6,000圓에 매입한다. 그 다음은 인천의 유지(有志) 67人으로부터 20,260圓의 기금을 마련하여 교사(校舍)를 신축하기에 이른다.

1년여의 공사를 거쳐 6개의 교실과 사무소 3개를 갖춘 '학교'를 짓고 1940년 10월 25일 감격스런 준공식을 하게 된다. 그 신축 기념비가 당시를 증언하며 지금도 중앙화단에 묵묵히 서 있다. 교지(校地) 조성비는 물론이거니와 교사(校舍)의 신축비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순수한 민족 선각자들의 성금에 의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동산>이 '민족사학'임을 입증하며 동산인들에게 영원히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또, 교사 신축 후 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할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흥선(李興善) 선생의 재정적 지원하에 1941년 5월 건평 80평의 무도장(武道場)이 완공되어 한층 학교교육이 알차게 된다. 한편, 항상 정규 갑종학교로 승격되도록 노력하던 중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책으로 단기일에 재단법인 설립을 강요받기에 이른다. 재단 설립에는 엄청난 재정이 요구되는 바, 여의치 못할 경우 학교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설립자들께서 재력가를 물색하기에 이른다. 마침 유창호(柳昌浩) 선생의 소개로 평소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있던 최승우(崔承宇) 선생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한다.

(2) 재단법인 인천상업학원 설립

최승우(崔承宇) 선생은 1868년 황해도 해주 출생, 서당공부를 마치고 상업에 몰두하여 인천신용조합장, 인천시조선인자선회장, 조선면자주식회사취체역, 인천흥업주식회사취체역사장을 역임하며 조선인의 권리신장에 앞장서고 있었다. 지주이며 사업가인 최승우 선생은 평소 육영사업에 뜻을 두고 기존의 재단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만, 당시 서울에(누상동) 거주하였기에 인천보다는 서울에서의 육영사업을 하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망설임을 보였다. 그러나 최승우 선생이 출생한 곳이 인천이며 사업의 터전이 인천이었으므로 설립자들의 잦은 방문과 설득으로 서울에서의 재단설립계획을 포기하고 인천에서의 육영사업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1941년 정월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지닌 최승우 선생은 설립자들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여 재단법인설립에 자신의 전재산을 투입하여 교육입국(教育立國)과 민족자존(民族自尊)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1941년 최승우 선생은 설립자들에게 약속한 재단법인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에 산재한 재산 중 일부인 황해도 연백 소재 사유농지 276,211 평과 인천에

소재한 대지(垵地)에 속한 건물을 기부한다는 기부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성립되고 설립자들이 양도한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최승우 선생이 출연한 농지 및 대지와 건물을 기반으로 한 재단법인설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인천상업전수학교는 발전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였고 폐교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설립자, 추진위원,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 1941년 4월 인천상업전수학교의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최승우 선생이 재단이사장에 취임하였으며 재단의 명칭을 인천상업학원이라 칭하였다.

(3) 前 설립자들의 기부

재단법인 인천상업학원이 설립되자 김운복, 유군성, 이흥선, 김세완, 김종섭 선생 등은 재단법인 인천상업학원 앞으로 4월 1일 기부증서를 작성하고 김운복, 이흥선, 김세완, 유군성, 김종섭 선생 명의로 등록된 교사 및 교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재단법인 인천상업학원에 기부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讓渡證

貴下가 今般 本人 등이 經營하고 있던 仁川商業專修學校를 財團法人組織下에 學校 令에 의한 商業學校로 昇格經營함에 대하여 下記 財産 其他一切를 讓渡함.

記

- 一. 現 仁川商業專修學校에 屬하는 財産(動産, 不動産) 一切
- 一. 財團法人設立 및 商業學校設立에 關한 一切의 行爲

昭和十六年 三月 十日

仁川商業專修學校

設立者 金允福 印

同 劉君星 印

同 李興善 印

同 金世玩 印

同 金鍾燮 印

崔承宇 殿

제2절 _ 최승우(崔承宇) 선생의 기부

(1) 기부 재산 목록

최승우 선생은 4월 20일 재단법인 인천상업학원 앞으로 약속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기부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寄附證書		
<p>拙者儀</p> <p style="text-align: center;">令般 教育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財團法人 仁川商業學院에 下記와 같이 寄附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昭和十六年 四月 二十日</p> <p style="text-align: right;">住所 京城府 樓上町 一六六番地 一二三</p> <p style="text-align: right;">崔承宇 印</p> <p>財團法人 仁川商業學院 殿</p> <p style="text-align: center;">記</p> <p>一. 財産目錄 中</p> <p>收益財産인 土地目錄 1通</p>		

[토지 목록 및 수익상황]

토지소재지			필수	지목	지적	수입 (3ヶ년 301ル/평균임)
군	면	리				
연백	류곡	화성	45	답	83,604평	인 404석 2두
"	해월	문산	71	"	114,889평	567석 9두
"	"	벽란	12	"	12,942평	60석
"	류곡	화성	27	전	32,881평	45석 8두
"	해월	문산	45	"	29,677평	30석 9두
"	류곡	화성	2	대	147평	8두
"	해월	문산	9	"	1,345평	6석 2두

토지소재지			필수	지목	지적	수입 (3ヶ년 301㏄/평균입)
군	면	리				
"	류곡	화성	1	잡종지	726평	1석3두
합계					276,211평	1,117석1두

합계 276,211평, 당시의 지가(地價)로는 22,913원, 시가(時價) 222,574원이었으며 이곳에서 나오는 수입금액은 년 12,643원(1,117석 1두)이었다. 또한 인천에 소재한 기부 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부토지 내역]

소재지	대지	가격
인천 경정 208-19	6평	300원
인천 경정 208-18	8평	400원
인천 용운정 127	42평	4,200원
인천 경정 229	222평	15,540원
합계	278평	20,440원

(2) 재단 재산 현황

당시의 총 재산목록은 아래와 같다.

재산총액 404,615원

1. 기본재산

1) 토지 279,489평, 294,014원

① 수익재산토지

답 211,435평, 204,355원

전 62,558평, 17,408원

대 1,770평, 21,179원

잡종지 728평, 72원

② 교지 3,000평, 51,000원

2) 건물 485평, 82,200원

① 수익재산건물

대가 139명, 9,200원

교사 346명, 73,000원

2. 보통재산 28,401원

1) 비품 및 도서류 18,401원

2) 정기예금 10,000원

(3) 학교설립자 변경 신청

최승우 선생은 자신이 출연한 재산과 교사 및 교지를 포함한 재산으로 재단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또한 학교설립자들은 학교설립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설립자 최승우 선생이 인천상업전수학교의 앞날에 새로운 발전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행위가 끝나자 이어 설립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 설립자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천상업전수학교 설립자 변경 인가신청서]

구설립자 대표 김윤복

이흥선

유군성

김세완

김종섭

신설립자 최승우

소화 십육년 구월이십 경기도지사 전

인천상업전수학교 설립자 변경 인가신청의 1건

인천상업전수학교 설립자를 별기요항에 의하여 변경하려 하므로 지금히 인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이유

인천상업전수학교는 소화 십사년 이월 설립자 인천시 경정 표칠 번지 김윤복외 4인으

로서 설립인가를 득하여 급일에 이르러 그간 학사의 신축 및 내용설비 등 점차 충실해오던 중 금회 경성부 누상정 일육육의 일삼삼 최승우의 발의로서 자기의 사재를 투입해 후래와 변함없이 우 전수학교 금후의 경영 및 유지를 담당하려 함을 기회로 김윤복의 4인의 구설립자는 탈퇴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장래 학교경영에 관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이에 만전을 기하려고 신설립자 등에서 계획중이며 사립학교의 완전한 유지경영 또는 발달상 지극히 적당하다고 인정됨.

이로써 구(舊) 설립자들은 학교의 경영 및 유지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신(新) 설립자에게 일임함으로써 모든 재단법인설립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최승우 선생은 구설립자로부터 양도받은 재산과 자신이 출연한 재산을 기본으로 인천상업학원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인천상업학교장인 산본씨(山本氏)는 전임 교장 목촌씨(木村氏)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교장 김영배 선생은 마침 인천상업학교장 산본씨와 만주여행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자 산본교장을 설득하기 시작하여 만주여행이 끝나고 돌아올 때 겨우 산본씨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명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1941년 11월 20일 재단법인인가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한 최승우 선생은 재단법인 인천상업학원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財團法人設立認可申請書

昭和十七年十一月十日

京城府 樓上町 一六六一二二三

設立者 崔承宇

朝鮮總督 小磯國昭 殿

別紙 寄附行爲에 의해 財團法人 仁川商業學院을 設立하고자 하오니 許可하여 주시기를 別紙關係書類를 첨부하여 申請합니다.

설립신청서와 함께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1944년(소화 19년) 3월 3일 일제는 전시비상조치에 의하여 상업학원의 설립을 금지하고 상업학교를 그들의 전쟁을 이루기 위한 자재 생산의 도구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상업학교를 공업학교로 전환하게 하였다. 당국의 압력을 받은 재단설립자들은 인천상업전수학교를 인천공업전수학교로 개편함과 동시에 재단법인의 명칭을 인천실업학원으로 변경하고 다시 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의 서류에 보면 상업전수학교의 '상(商)' 자를 두 줄로 긋고 '실(實)' 자로 고친 것은 이런 연유에 의한 것이었다.

1944년 3월 3일 당국의 강압에 의하여 모든 서류의 재단법인명칭 및 학교명칭을 변경하고 재단법인 인천실업학원설립허가원을 신청하였다.

昭和十七年十一月十日

京城府 樓上町 一六六一二二三

崔承宇

總督 殿

財團法人 仁川商業學院 設立許可願에 關한 件

昭和十七年十一月二十日로 表記 法人設立申請을 하였으나 今般 戰時教育非常措置에 따라서 後來 經營해 온 商業專修學校를 工業專修學校로 轉換함과 同時에 法人名稱을 下記와 같이 變更하여 別紙 添附行爲 및 昭和十九年부터 完成年度에 이르기까지의 豫算書를 교체할 것을 申請함.

記

財團法人 仁川實業學院

재단의 설립을 신청하였으나 그 인가는 언제 날지도 모르지만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교가 폐교되므로 학교의 폐교를 면하기 위하여는 당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인내하여야 하는 실정이었다. 1944년 3월말 태평양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한 일제는 당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영구적인 압박의 길을 터놓기 위하여 전시교육과정으로 바꾸었으며 3월 3일 제출한 학교명칭은 개편 인가되어 1944년 5월 5일 학교의 정식 명칭이 인천공

업전수학교로 바뀌게 되었다.

[인천공업전수학교 설치인가서]

學第 號

崔承宇

昭和十九年三月二十日附申請仁川工業專修學校設置1件認可ス

昭和十九年五月五日

京畿道知事 瀬戸道一

결국 재단의 설립인가를 미루어오던 당국은 1944년 5월 16일 재단법인 인천실업학원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재단법인 인천실업학원 설립인가서]

學第一〇三號

崔承宇

昭和十九年三月三日附申請財團法人仁川實業學院設立1件認可ス

昭和十九年五月十六日

朝鮮總督 小磯國昭 ㊟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한 당국은 1944년 8월 19일 조선총독부관보 제 5,260 호를 통하여 재단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였다.

財團法人設立

名稱 財團法人 仁川實業學院

事務所 仁川府 松林町 四七番地

設立許可年月日 昭和十九年 五月 十六日

總資產 404,615圓

理事氏名住所 崔承宇, 京城府 鐘路區 樓上町 一六六番地 一二三

金英培, 仁川府 栗木町 二三九番地

金慶鎮, 釜山府 草梁町 五九七番地

金鍾燮, 仁川府 栗木町 二〇三番地

深見寅市, 同府 山根町 十四番地

昭和十九年 七月 四日 登記

京城地方法院仁川支廳

제3절 _ 초대 이사장 취임, 이사진과 정관

(1) 초대 이사진 구성

1944년 5월 16일 인천실업학원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고 동년 7월 4일 법원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1944년 5월 16일 인가 당시의 이사진은 다음과 같다.

인천실업학원(仁川實業學院)

이사장 최승우(崔承宇)

이 사 김중섭(金鍾燮)

김영배(金英培)

김경진(金慶鎮)

심견인시(深見寅市)

감 사 김세완(金世完)

이해방(李海芳)

이로써 재단의 설립이 이루어졌고 초대 이사장으로 최승우 선생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재단은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가을에는 연백에서 추수한 쌀을 학교 운동장에 쌓아서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많은 쌀가마를 운동장에 쌓았다고 한다. 교사에 대한 예우를 특별히 우대하여 사택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일반공무원이 15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때 교사 90~100원, 교장 150원~200원의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사장 최승우 선생은 교육에의 원대한 포부를 활짝 펴지 못한 채 1945년 1월 15일 77세를 일기로 서거하신다.